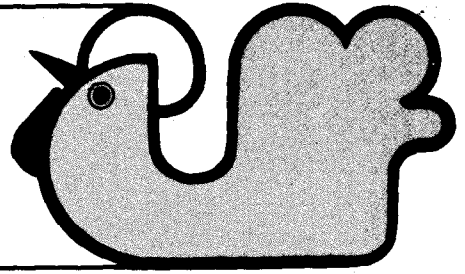


# 소식

## 대한양계협회



### 계사의 시설 및 환경개선과 수익성향상 심포지움

본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주최로 실시

- 2월 23일 수원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

본 협회와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가 공동 주최하는 계사의 시설 및 환경개선과 수익성향상에 대한 심포지움이 오는 2월 23일(화) 09:00~17:00 수원시 오목천동 소재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양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계사시설에 대한 중점논의로 실제 양계농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양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시: 1988. 2. 23(화) 09:00~17:00
- 장소: 축산시험장 대강당(수원시 오목천동 소재)
- 주최: 대한양계협회·한국가금학회

● 후원: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

● 협찬: 신기농장, 제일제당(주)

● 참가비: 10,000 원

● 강의내용:

- ① 계사의 구조와 시설/미국양계시설 전문가
- ② 계사환경과 시설개선/신홍종사장(고창양계)
- ③ 계분처리와 이용방안/장대석사장(쌍용농장)

● 기타사항: 심포지움이 끝난 후 오후 4시부터는 축산시험장 양계시설 및 축산사육 현황을 견학할 예정이다.

### 본회 '88정기총회 개최

- 2월 11일 오후 2시에 -

본회는 오는 2월 11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88. 2. 11(화) 오후 2시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 등록시간: 오후 1시~2시
- 보고 및 부의안건:
  - 1) '87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 2) 임원개선
  - 3) '88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 4) 기타사항

### 홍보협찬금 올해 1억5천만원 목표

- 전양계인의 적극적인 협조 기대 -



△방승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본회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소비홍보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여러분의 협조로 홍보협찬금이 목표액(1억 5천만원)의 99%를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자발적인 홍보협찬금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정성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중 협찬금은 300,000원이 접수되었으며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 김수동(창동부회장) : 100,000원
- 본회 용인분회(분회장 최종필) : 200,000원

## 전국 지부장회의 개최

- 1월 15~16일 대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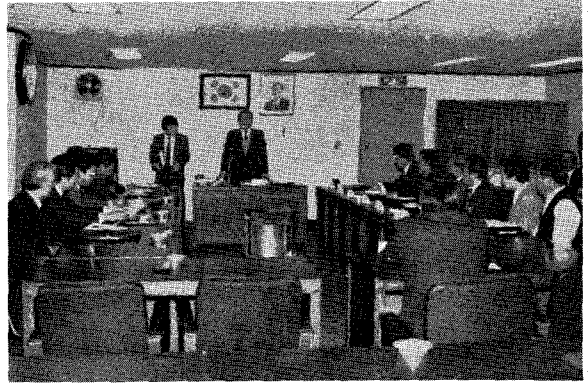
△1박2일간 전국 지부장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 전국 지부장회의가 지난 1월 15일(금) 오후 5시부터 1박2일동안 충남 대전 유성소재 대온장호텔에서 각도지부장, 본회 황인옥전무, 임덕성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87년도 사업실적과 8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교환과 난가고시, 수입개방, 양계인대회개최, 이사회 및 총회개최, 88홍보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88년도를 맞아 중앙과 지방의 일사불란한 협조체제로 양계산업의 안정적발전을 위해 자주 지부장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본회 및 지부 집행부직원의 상호 행정 효율화를 위한 모임도 갖기로 했다.

## 88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88년도 제1차 이사회.

본회는 지난 1월 29일(금) 오후 3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8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본회 황인옥전무가 87년 12월 21일 이후 협회 주요업무 보고를 한후 노광순감사의 87년도 사업 및 수지예산집행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 안전 심의에서 △'87사업실적 및 수지예산결산 △규정일부개정(안) △'88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기타사항으로 '87유공 포상대상자 선정, '88 정기총회 장소 및 일시결정, 전국양계인단합대회 협조사항과 양계업 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 '88양계인 신년인사회 개최

- 1월 7일 회장단 후원으로 -



△전국 양계인 간의 신년인사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88년도 양계인 신년인사회가 1월 7일(목) 오후 6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본회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임원 등 양계인과 농림수산부관계관, 각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장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신년인사회는 전국에서 70여명이 참석하여 1988년을 맞아 상호인사와 양계산업발전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교환했다.

본회는 매년초 회장단의 후원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양계인의 단합과 안정된 발전의지를 한데 모아 왔다.

이날 인사회에는 이창열, 박도현, 이재근씨 등 원로 양계인도 참가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 계란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요청

- 본회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전국계우회연합회 공동으로 -



△(주)삼립식품을 방문한 생산자 대표

본회는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과 전국계우회연합회 공동으로 지난 1월 7일 (주)삼립식품에 「계란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달하고 악덕상인으로부터의 불공정한 계란덤핑구매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삼립식품에 대해 계란구매에 있어 일부 악덕상인으로부터 불공정한 덤핑구매는 계란유통질서의 혼란야기는 물론 악덕상인을 통한 무자비한 양계농가 착취를 조장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조속한 계란구매의 정상화를 당부했다.

또한 양계농민들이 (주)삼립식품에 납품하는 악덕

상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수탈과 착취를 당해 결국은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실정이라면서 생산자단체 또는 기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구매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양계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양계인들은 전국규모의 「양계인 단합대회」를 개최, (주)삼립식품제품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매운동 등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주)삼립식품 관계자는 양계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다른 업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계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해왔다.

### 불우이웃에 달걀·닭고기 보내기 운동

- 1,2차 70구좌분 양로원에 전달 -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축산신보사가 주관하고 있는 「불우이웃에 달걀·닭고기 보내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1월 29일 현재 총 1,055구좌가 접수되었다.



△천사양로원에 달걀 및 닭고기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1월 2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청암양로원과 강서구 화곡3동 소재 천사양로원에 각각 35구좌분(달걀 3천개, 닭고기 1백수분)을 전달했는데 특히 1월 25일에는 본회 정태원 회장과 축산신보사 윤봉중사장이 천사양로원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불우한 이웃에 대한 달걀·닭고기 보내기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1,2차로 나누어 방문한 이들 두 양로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과거 양로원을 찾는 사람들은 명절 즈음 부유층에서 많이 찾아왔지만 최근 어려운 축산인들의 정성 어린 값진 위문품에 감사한다」며 축산인의 훈훈한 정에 감동했다.

한편 동사는 「불우이웃에 달걀·닭고기 보내기운동」을 오는 2월 15일까지 접수받으며, 1차로 청암양로원에 전달한 것을 필두로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본회가 적극 후원하고 있다.

### 본회 시무식 거행



△88년도 본회 시무식

본회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정태원회장을 비롯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 정태원회장은 양계산업발전과 안정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88년에는 홍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더욱 진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입개방압력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전국 양계인을 위해 더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배전의 노력을 당부했다.

시무식에 이어 본협회는 활기찬 88년을 기약하는 업무에 들어갔다.

### 강재명 지도조사부대리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 배선채사장과 정석택사장도 -

지난 12월 30일(수) 농림수산부는 87년도 축산진흥공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는데 본회 강재명 지도조

사부대리가 양계인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각종 정보전달을 통한 생산조절을 유도하는 등 양계산업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강대리는 각종 강습회·세미나·좌담회 등을 주관 실시해 왔으며 수시로 양계농가를 방문, 새로운 양계기술보급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본회에서 발간되는 주간 양계속보를 통하여 생산, 소비, 시세동향 및 향후전망 등을 분석보도하므로써 자율생산조절을 유도하여 양계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장관표창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중원농장 배선채사장과 명지부화장 정석택사장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국회직능대표 참여 축산인에 문호개방 건의

- 8개 축산관련단체 연명으로 -

본회를 비롯 대한양돈협회 등 8개 축산관련단체들은 최근 전국 1백50만 축산농민지도자를 국회직능대표로 참여토록 해줄 것을 골자로한 내용을 진두환대통령과 노태우 차기대통령에게 각각 건의했다.

이번 축산관련단체장 연명으로 제출된 건의내용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치의 민주화를 비롯한 개방과 자율화의 대전환적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국민대화합과 사회 모든분야가 골고루 안정적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할 역사적 중요한 시점에 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의 생존산업인 농축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식량의 자급도를 꾸준히 높여왔으며 특히 축산업은 1백50만 축산농민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육류수급의 산업적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민주화합정체에 의한 국운개척을 목표로 출범하는 차기 새공화국은 1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국 축산인 대표를 국회 직능대표로 축산농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농민들을 민주국가와 사회발전에 동참케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에는 본회와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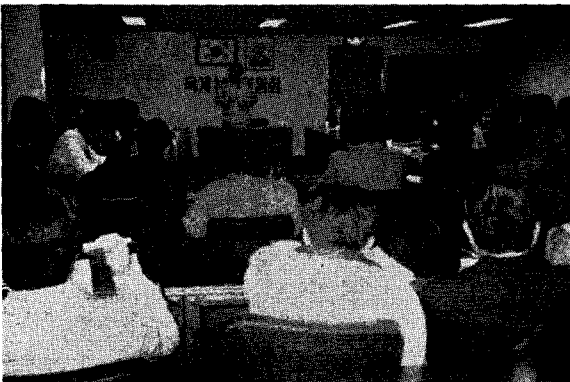
### 편집위원회 개최

88년 제1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지난 1월13일(수) 오후4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년초 각자 바쁜 일정 때문인지 이번 회의에는 참석자가 적었지만 다음호 발간에 대한 편집(안) 계획수립은 세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후 이루어졌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 있는만큼 축산정책(양계관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국내양축업자에게 대처방안모색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전달에 전력을 기울여 편집방향을 이 끌어 나가기로 했다.

### 1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올해의 첫번째 육계분과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10월27일(수)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개최되었다.

이날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육계값은 세미 950~980원, 하이 1,000~1,020원, 중부지역은 세미 930~950원, 하이 950~980원, 영·호남지역은 하이 950~1,000원에 거래되었고 병아리값은 지역에 관계없이 250~280원으로 입추열이 강한 관계로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가격도 계속 오를 전망이었다.

육계값은 지난해 12월초 병아리 생산수수가 늘지않은 반면 전국에 질병이 발생되고 특히 북부지역에 20

% 폐사가 생길 정도로 심해 하이물량이 절대부족하여 kg당 1,000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값은 2월중순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사내의 환기가 제대로 되지않아 I.L.T(전염성 후두기관염), IB(전염성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병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북부지역에서 사육초기에 20% 가까이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40%까지 나온 농장도 있으므로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육계분과회의는 2월29일(월)에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1987년도 소득표준을 인하 건의

본회는 1987년도 양계업 소득표준을 인하조정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87년도 양계산물 성수기인 여름철에 유례없는 폭우와 장마로 인한 소비위축과 노사분규 등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장기간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당한데다 대부분 양계농가가 영세해 기장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현행 유통구조가 기장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87년도 양계업 소득표준을 현실에 맞게 채란업, 육계업 모두 무세로 인하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고로 87년도 계란생산비가 41.6원인데 비해 농가수취 평균가격은 41.1원이며, 육계는 생산비가 kg당 792.5인데 비해 농가수취 평균가격은 749.6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행 86년도 양계업소득표준율은 채란계 9%, 육계 7.2%이다.

### 본회 '88정기자체감사 실시

지난 1월 23일(토) 본회회의실에서 노광순감사가 협회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 '88 양계협회 총회

- 일시 : '88. 2월11일(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제1회의실)